1 논술전형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계열 기출문제 및 해설

1 출제의도

가. 공통 및 문제 1번

1) 이번 〈인문계열〉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2) 고등학교 교과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이타주의'를 대주제로 설정하고, 이타주의의 원동력이 되는 '선의지'와 '도덕적 명령', '유전자(DNA)'에 의한 결정, '이성', '감정', '실천' 등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지문을 발췌하고 편집하였으며, 교과서에 출처가 표시된 원전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된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게 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력, 표현력과 독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나. 문제 2번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와 〈그래프〉는 가상의 한 도시에서 고등학생들의 가치관, 시간 사용, 즐거움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출제 의도에 맞춰 작성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서로 다른 학생 그룹에서 의지와 타고난 재능의 중요성, 이타적 행동, 즐거움의 정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표〉와 〈그림〉을 이해하고,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2

공동체적, 이타적 행동에서 타고난 유전자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사이의 관계를 수리적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교과서 〈고전과 윤리〉(전라북도교육청, 2020, 42–43쪽)에 제시된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칸트의 윤리 사상' 내용을 발췌하여 출제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가)는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도덕법칙에 따라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의지라고 말한다. 따라서 단지 옳다는 이유에서 도덕적 실천을 하는 의지만이 무조건 적으로 선하다. 이런 선의지에 따라 행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해야 한다. 인간은 이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도덕법칙은 인간에게는 강제적 명령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이므로 도덕명령에 따르는 것은 외적인 강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적 검토를 통해 스스로가 수립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자율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다. 이때 이성은 한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이 모든 사람이 따르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편적 도덕법칙을 수립하게 된다.

제시문 (나)

이타주의 및 인간 행위의 가능성을 유전자 결정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최재천의 〈과학자의 서재〉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2020, 117–123)와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20, 226–230)에 실려 있다. 필자는 솔제니친의 글 〈모닥불과 개미〉를 언급하며 집과 다른 개미들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개미의 희생적인 행동에서 이타주의를 읽어낸다. 이어 인간의 이타주의도 언급하면서, 동물과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이타주의의 기원을 유전자에서 찾는다. 모든 존재는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라는 명제로 이러한 관점을 명료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필자는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서 필자는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에서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해나가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삶과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

제시문 (다)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20, 173쪽)에 게재된 〈레미제라블〉의 한 대목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본 부분을 발췌하여 출제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프랑스 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문이다. 화자는 청자들이 양심과 마음에 귀 기울여 대의에 헌신하려는 열의를 깨닫기를 촉구하며, 남들을 생각하고 이기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 죽을지라도 혁명을 일으켜 프랑스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자고 호소하며 자유, 평등, 박애의 대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외친다. 목숨을 바치는 희생은 인류가 해방되기 위한 통행료이기에 자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고 있다.

제시문 (라)

〈표 1〉은 의지를 중요시하는 학생들(A 그룹)과 타고난 재능을 중요시하는 학생들(B 그룹)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표 2〉는 공동체 봉사 시간의 대학 입시 미반영 방침 후, A 그룹 중 공동체 봉사 시간 상위 50%인 A–1 그룹과 하위 50%인 A–2 그룹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그림 1〉은 A 그룹, B 그룹, A–1 그룹, A–2 그룹의 방침 변경 전과 후의 생활의 즐거움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문항 해설

문제 2-1

제시문 (라) 〈표 1〉은 의지를 중요시하는 학생들(A 그룹)과 타고난 재능을 중요시하는 학생들(B 그룹)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표 2〉는 봉사 시간의 대입 입시 미반영 방침 후, A그룹 중 봉사 시간 상위 50%인 A-1 그룹과 하위 50%인 A-2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그림 1〉은 A그룹, B그룹, A-1그룹, A-2그룹의 방침 변경 전과 후의 생활의 즐거움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 2-2

1)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및 관련 함수 계산

전체 인구 중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 이타적인 사람 비율 × 이타적인 사람 공동체 활동 비율

+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 비율 ×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 공동체 활동 비율

이 식을 이용해 전체 인구에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의 최솟값 및 최댓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최솟값: $P = 0.6 \times 0.6 + 0.4 \times 0.2 = 0.44$

최댓값: $Q = 0.6 \times 0.75 + 0.4 \times 0.25 = 0.55$

정부가 가능한 역량의 $100x\%$를 정책에 투입하면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중이 다음과 같다.

$P + x(Q - P) = 0.44 + (0.55 - 0.44)x = 0.44 + 0.11x$

이를 이용해 공동체 활동의 편익을 계산할 수 있다.

$f(x) = 100\{P + x(Q - P)\} = 100(0.44 + 0.11x) = 44 + 11x$

그러면 공동체 활동의 편익에서 정책 비용을 뺀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y = f(x) - g(x) = 44 + 11x - (x^4 - 8x^2 + 11x) = -x^4 + 8x^2 + 44$

2) 정부의 문제 풀기

정부의 문제는 y가 최댓값이 되는 x를 닫힌구간 [0,1]에서 찾아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y의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y' = -4x^3 + 16x = -4x(x+2)(x-2)$

$x = 0$이면 $y' = 0$이고, $0 < x \leq 1$이면 $y' > 0$이다. 따라서 y는 구간 [0,1]에서 증가이다.

그러므로 구간 [0,1]에서 y가 최댓값이 되려면 $x = 1$이어야 한다.

즉 정부는 가능한 역량의 100%를 공동체 활동 촉진 정책에 투입한다.

3)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율을 제시문 (나)와 연결지어 해석

제시문 (나) 저자의 태도는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관련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① 유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이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의 60%, 이타적 기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의 20%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즉 타고난 기질에 따라 공동체 활동 참여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P = 0.44$이므로, 인구의 44%는 유전자에 따라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은 유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제시문 (나)의 논지와 비슷하다.

② 그래도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정부는 $x = 1$을 선택한다. 즉 공동체 활동 촉진을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투입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 이 점은 유전자가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상황에 힘을 다하여 살겠다는 제시문 (나) 저자의 결심과 일맥상통한다.

③ 하지만 인간의 성취는 유전자가 정한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

정부가 $x = 1$, 즉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동체 활동 촉진 정책을 펼치더라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최댓값으로 규정된 $Q = 0.55$를 넘지 못한다. 즉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룰 수 있는 일은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 내에서 가능하다는 제시문 (나)의 주장과 비슷하다.

4 제시문 (다) 지문 번역

자, 양심을 돌이켜보고 마음에 물어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소. 여러분이 모두 용감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소. 여러분이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기쁨과 명예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아오. 여러분 스스로가 의미있고 당당히 죽기를 위해 선택되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의 몫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오.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소.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되오.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마음속에 상상해 보았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 민족의 단결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인류의 단결을 향하여 가는 것이오. 프랑스는 그 역사에서 이 장엄한 미래를 볼 것이오. 여러분, 오늘 일이 어떻게 되건, 승리를 얻게 되건 패배하건 우리가 완수하려는 것은 혁명이오. 큰 화재가 온 도시를 환하게 비추듯, 이 혁명이 전 인류를 비출 것이오. 그럼 우리는 어떤 혁명을 할 것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했소. 자유, 평등, 박애이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성공을 의심하더라도 우리의 대의를 의심하지 않소. 지원군은 틀림없이 올 것이오. 그러나 지원군이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이 무슨 문제이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여기서 남아 싸우다 죽읍시다!

벗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인 것이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당연한 비용이오. 혁명은 하나의 세금이오. 오! 이리하여 인류는 해방되고 훌륭하게 위로받을 것이오! 우리는 이 바리케이드 위에서 그것을 인류에게 단언하오. 사랑의 외침 소리는 높은 희생정신이 아니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소?

형제들이여, 여기는 생각하는 자와 괴로워하는 자가 서로 결합하는 곳이오. 이곳에서 비참함과 이상이 서로 만날 것이고, 낮은 여기서 밤을 포옹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오. 나는 그대와 함께 죽고, 그대는 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오. 온갖 고통을 끌어안는 데서 굳은 신념이 솟구쳐 나오는 거요. 비참함이 여기에 고통을 가져오고, 이상은 불멸을 가져오고 있소. 그 고통과 불멸은 융합되어 머지않아 우리의 죽음을 이룰 것이오. 형제들이여, 이곳에서 죽는 자는 미래의 광명 속에서 죽는 것이오. 우리는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 빛으로 가득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오.